

교회 목록

신명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3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오늘은 교회설립 제5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생동하는 교회여, 십자가로 승리하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갑작스런 집중 호우와 짙은 듯한 무더위로 분주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새벽녘에는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한여름, 복음 안에서 심과 은혜를 누리던 분들도 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복음의 빛(요 1:9)으로 살펴야 합니다. 집중 호우와 무더위를 뚝 떼어 삼아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라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보냈던 지난 여름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설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건물 등 겉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빌 3:8-10).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급요집회를 중심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밤’에 나신 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거룩한 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올해의 마지막 정기회 훈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

한 훈련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끼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심령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 예배 시 있을 특별찬양을 통해서 지난 53년간 죄인들의 교회에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공 예배와 집회, 모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월요 새벽기도회 위임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9월 4일 월요일부터 월요 새벽기도회 시간에 위임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4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오니 전교인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6차 성찬식이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 2·3부 예배는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영아·유아·유지·고통부는 자체 예배)

* 교회설립 기념 특별찬양이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서머나 교회는 인간 또는 세상의 시작으로 보면 그야말로 가난한 교회이다. 환난이 그들을 고달프게 하였고, 궁핍함은 그들의 배를 허기지게 하였다(계 2:9a). 그러나 믿음의 시작으로 바라보면 부요한 교회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처음 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진리의 주께서 평가하셨기 때문이다(계 2:8). 오히려 참된 부요함을 모르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예수 믿고 당하게 되는 환난과 궁핍을 죄 때문이라고 관망하는 우리의 오해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게 하신다. 오히려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 16:33).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께서 이 세상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머나 교회를 필박한 것은 정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행방이었다(계 2:9b). 예수와 사도들을 죽였고, 교회를 필박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자들의 회였으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이었다(계 2:10a). 그

정복되지 않는 교회 (계 2:8~11)

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을 모면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장차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계 2:10b).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성도의 고통을 모르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다! 그 이유란 무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딤후 3:12).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주께 고백했던 헌신의 기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계 2:10c). 그래서 환난은 충성스러움을 증명하는 시험 문제이다. 절대로 저주가 아니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축복이다(계 2:10d).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환난과 필박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만들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다(히 11:33). 그래서 볼 같은 시련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 까닭에 그들은 세상을 향해 한 번도 생명을 구하지가 구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필박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느니,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으리라! “지난 80여 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한 충성을 멈출 수 있던 말입니까?” 불보다 뜨거운 고백을 토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지나 천국에 이른 서머나 교회의 교부 폴리갑, 사자의 발이 되어 불길 땅조차 필요 없었던 이그나시우스, 그리고 이 땅에 피를 흘려 복음의 씨를 틔웠던 예수의 신부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정복되지 않는 교회이다!

(김성관 위임목사)

THE LORD IS MY STRENGTH, SONG & SALVATION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This is my God, and I w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 will extol Him.

(Exodus 15:2)

God is so many things to believers. Sometimes, He is their Lily of the Valleys, Morning Star, Word of Life, and Good Shepherd. Sometimes, He is their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God and King of Peace. Especially in today’s chapter, all the Israelites and Moses witness the many miracles of God, and that He really delivered them from Egypt. Over here, they finally realize who God is and give a strong profession,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Ex. 15:2).

Is the Lord your strength? There are many conflicts in the Christian life that involve pain and suffering because of the way of the cross. If you are a real believer, a true Christian, you cannot deny that all believers must journey down the narrow path. Unfortunately, many of today’s churches preach the opposite message, which says that when you become a Christian life is easy and carefree. Paul prayed that God would grant the Ephesia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Eph. 3:16). It is not about outside earthly, material possessions that others can see, but an inside richness. As believers fight in the battles of Christianity, their inner selves are empowered through the glory of God. His power makes endurance and perseverance possible during hard times. 1 John 4:4 says, “You are from God, little children,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who is in the world.” Believers have to be in Jesus Christ because it is through His power that they become strong. He strengthens the inner self of believers, so that they can experience the joy and happiness of the Lord. Paul advises believers,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2 Tim. 2:3). Soldiers understand that hard times and difficult battles lie ahead. Paul encourages believers,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and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1 Tim. 6:12). If you take hold of temporary life, instead of eternal life, your strength will fail. Habakkuk testified, “The Lord God is my strength, and He has made my feet like hinds’ feet, and makes me walk on my high places”(Hab. 3:19). Wherever your feet must travel, the Lord God will lead you. Isaiah 40:31 says,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As a final point, Psalm 23:4 say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Is the Lord your song? Actually, the life of a Christian is a melody filled with joy, not complaining and grumbling. Real Christians have special character; they can sing in times of trouble! They cannot sing through their own power, but through God’s power praise and worship flows through their mouths. If you have not experienced this kind of music, your faith is not strong enough. It is just like if your lungs are not strong, your body cannot have harmony. The early church, a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truly witnessed the Lord as their song. Peter was scared befor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ut afterwards, he and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began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They started proclaiming the gospel, and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Acts 2:47). When the lame man heard the name of Jesus, “With a leap he stood upright and began to walk; and he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Acts 3:8). After Peter and John told their companions about their persecution experience in front of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their companions “lifted their voices to God with one accord and said, ‘O Lord, it is You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Acts 4:24). Following a severe beating and imprisonment for healing a demon-possessed girl,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Acts 16:25). If you become a Christian, you cannot shut your mouth. The song of the Lord keeps pouring out. Ephesians 5:18&19 say,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 your heart to the Lord.” David sang of God,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a song of praise to our God; many will see and fear and will trust in the Lord”(Ps. 40:3). Lastly, Colossians 3:16 tells us,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Is the Lord your salvation? Colossians 1:13&14 say, “For He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God’s grace is free. Salvation comes through redemption. Redemption means you are born-again. Peter write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1 Pet. 1:3-5). Can you believe it?

My dear friend, David sang to the Lor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and my refuge; my savior, You save me from violence”(2 Sam. 22:2&3). He sang this song because God was everything to him: his rock, fortress, deliverer, shield, horn of salvation, stronghold, refuge, and savior. Are you a believer? Do you really live the Christian life? Is the strength of the Lord inside you? Do you sing the Lord’s song? Has He become your salvation? Please, come to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inner strength that will make His song lift you up to heaven. Amen. 

다음 주일 설교

여호와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2)



김성관 목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있어 수많은 의미로 다가오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골짜기의 백향화요, 새벽 별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기도자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배푸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 15:2).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에게 아픔과 고통이 따르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참 신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모든 신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이 술술 풀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16). 바울이 간구한 것은 세상적인 길 사람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기독교라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그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4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도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나"(딤후 2:3). 군사들은 그들 앞에 힘겨운 시간과 어려운 전장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2). 만약 영원한 생명 대신 시한부적인 인생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무리해질 것입니다. 허박군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합 3:19).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31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임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23:4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찬 노래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과 경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혼의 노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

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폐가 건강하지 않을 때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 교회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집에 질려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행 2:47). 앓은뱅이였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행 3:8).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 진한 후, 동료들은 '임신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라고 찬양했습니다(행 4:24). 절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후 십자가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행 16:25).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려면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5:18,19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 40:3).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16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 골로새서 1:13,14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구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은 곧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3-5). 이것을 믿습니까?

사망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 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홍역에서 구원하셨도다"(삼하 22:2,3). 다윗이 이처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바위, 요새, 구원자,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 진실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의 노래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

성경 속의 어린이들

마리아의 찬송 (누가복음 1:46-56)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들을 찾아주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며,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구약의 역사는 주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언되었고, 시간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주님은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이다. 예언된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들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 원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죽음의 그늘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들은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 이 구약의 역사는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실이다.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찾아주신다(눅 1:30). 마치 이 장면은 미디어 광고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하다. 이런 일은 우리의 지·정·의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가 은총의 종교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적인 행위로 인한 은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은총의 역사이다.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한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다윗의 왕가에 영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눅 1:32,33). 마리아가 처음 들은 이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 하나님의 아들이라”(눅 1:35).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시작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속주이다(눅 1:37).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는 찬송한다. 마리아는 구주로 인하여 기뻐한다(눅 1:47).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다(눅 1:48).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듯이 은총의 자녀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 됨을 깨닫는다. 다말, 라합,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로 사용하신다. 임신한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도 찬송했다(눅 1:42,43). 특히 엘리사벳은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았던 것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구원을 주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였다.

마리아는 구주의 신성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눅 1:49).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한다.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흠으시고, 겸손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결국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신다(눅 1:50-53). 주님은 친히 성육신하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은총의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말로 구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눅 1:54).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켰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나니”(눅 1:55).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축복이 비천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여러분의 찬송 제목은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라고 찬송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

(김성관 위임목사)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충현의 젊은이, 청년 2부



김성관 (영로, 청년 2부장)

청년 2부는 만 40세까지의 결혼한 세대와 35세에서 만 40세까지의 미혼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팀과 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동성 있는 젊은이에게 십자가 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모든 예배와 집회 시작 15분 전 입실, 성경 1독, 1인 1명 정도, 단기선교 동행, 교구모임 참석입니다. 이제는 많은 회원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로 더 가까이 나아갈기를 원하는 청년 2부는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약 4:8).

청년 2부는 주일 오전 10:20에 제2교육관에서 교사와 팀·조장이 모여 <충현의 만나>를 미리 상고하며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적인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간구하며 각 조에 맡겨진 조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회원들이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조별 성경공부를 통해 그날 들은 말씀을 놓고 실제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별 성경공부를 마친 후 이이 교구모임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일마다 신일 회회 등록과 신일팀에서 양육

받은 회원들이 동반하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청년 2부의 팀·조장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임무부 팀·조장에게 맡겼을 때에는 몹시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불안은 말씀히 사라지고 팀장, 조장을 비롯하여 모든 조원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되고 있습니다. 팀·조장들은 맡겨진 조원들의 가정을 심방을 통하여 돌아보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하는 주중 보고서를 통하여 회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며, 이것은 교역자들에게 보고되어 한 영혼도 나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청년 2부의 회원 중 80여 명은 4개의 선교 팀과 각 소속 교구로 나누어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도를 위해서는 각 팀별로 지역을 정하여 교회주변 정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구모임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배부장을 두어 교구모임에 참여를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자신이 속한 교구를 더욱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금요 집회 후 전체 기도회와 수요일 1부 예배 후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많아 넘어지기 쉬운 연령인 청년 2부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충현의 젊은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망월까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교

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쯤, 친정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스무 날이 지나도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선교를 갈 행령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못 가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때 진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사흘 전에 어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며 그간 불안해 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했으며, 어떤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실지 기대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어린 생명들의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복음에 대해 너무나 진지했던 어린 생명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이시다"라며 구주 예수님께 열정기도를 시켰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까지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영혼들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일사부가 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윤선주(집사, 9교구)

이번 주에 흠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4일(월) ~ 9월 12일(화)	1교구 8지역	김용조
9월 4일(월) ~ 9월 13일(수)	4교구 4지역	박원화
9월 5일(화) ~ 9월 14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9월 6일(수) ~ 9월 13일(수)	14교구 5지역	공석생
9월 6일(수) ~ 9월 14일(목)	7교구 4지역	장일남
9월 6일(수) ~ 9월 14일(목)	8교구 3지역	김해길
9월 6일(수) ~ 9월 14일(목)	17교구 3지역	이호일
9월 7일(목) ~ 9월 15일(금)	장년2부 1팀	권 철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8일(월) ~ 9월 5일(화)	권사회	김영숙
8월 30일(수) ~ 9월 8일(금)	1교구 7지역	전삼진
8월 30일(수) ~ 9월 8일(금)	13교구 7지역	양승복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소서"

-고등부-



◆ 선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선교는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다. 나는 전하고 주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배경이 생겼다. 내가 전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믿게 하실 것이다. 나는 100% 믿는다. 박다솔

◆ 공인의 감시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잊을 수 없다. 비록 한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다음에도 또 가겠다. 이진영

◆ 사역 첫날, 우리를 외면하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다. 그 날 저녁 경건회 때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니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한 친구의 기도가 마음에 남았다. 내가 실망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절할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끝나는 회개하였다. 염은

◆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전해 줄 때마다 혹시나 그냥 버리진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였지만 잘 읽어 주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순수한 아이들도 많이 만났다. 할말 준들이 날 만큼 감사했다. 그 영혼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전숙련

◆ 선교 가기 전 영성 심사에서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냥 순교하는 거지요!"라고 대답해 놓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니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주님 없이 우리 어떻게 될까?'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변해연

◆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개를 하였다. 이 넓은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타영

◆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 오다현

◆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한 가족을 만났다. 의사소통은 잘 안 되었지만 주님을 믿는 그 마음만은 통하였다.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 가족을 만난 후 정말 많은 회개를 하였다. 이나현

◆ 언어가 미숙하여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에 관심을 보이며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살아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은훈

◆ 두 번째 선교라서 자만하고 있었다. 전도를 하려 하니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속으로 '주님 왜 저를 안 도와 주시는 겁니까?'라고 기도를 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고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만 믿고 겸손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니가 선교가 잘 되었다. 장훈호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키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권력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세리 중의 으뜸이었다. 또한 그는 부자였다.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돈과 권력이 많아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나 또한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또 언제나 웃으며 전에도 힘쓰고 있다. 그래서 내뿜는 '이 정도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가끔은 손에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삭개오를 더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뒤, 나의 이런 생각들이 달라졌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좀 무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세상의 성공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는 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기쁨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뽀나뚜까지 올라갔을까? 그는 바로,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뽀나뚜에 올라갔다. '주께서 날 낱 주시길, 내게도 그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

삭개오의 대담함과 자신감이, 아니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부럽기만 하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적인 모든 걸 던져 버린 그 열정, 예수님을 위해 자선심과 명예를 버리고 뽀나뚜로 올라간 그 열정,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갔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한다. 나도 삭개오처럼 앞뒤를 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나도 삭개오처럼 나의 키의 두 배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가질 것이다. 나도 삭개오처럼 내 환경과 조건을 생각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께 다가가기를 기도하겠다.

오지현(충동 2부)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로!

32개월 된 쌍둥이와 씨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제가 처음 마리아 전도회장에 임명받았을 때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저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수, 지유가 어떤 아이였던가? 결혼 8여 년 만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 태어난 귀작과도 같은 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건만 정작 이 아이들 때문에 주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젠 정말 안 되지.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순종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우리 17교구 교회와 거리가 멀다는 것, 열마의 연령에 비해 아이들이 무척 어리다는 것 등 이런 점에서 보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점점보다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감당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17교구 마리아 전도회원 모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모임이 기다려지는 전도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행사로 월례회가 좀 늦추어지면 '왜 연락이 안 오지?' 하며 궁금해 하는 회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뭐 그리 대단한 것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피조물로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날 저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끄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본분 힘써 다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유기영(집사, 17교구)



십자가를 전하는 증언교회 교회 설립 53년을 맞는 십자가 증인들의 고백

◆ 교회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증언교회, 사랑에!
박주영(유아부)

음이 쑥쑥 자라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증언교회 되게 해 주세요.
여명연(중동부)

면 좋겠습니다. 양성운(중동 3부)

◆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비록 우리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임수진(유아부)

◆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주은(중동 1부)

◆ 저희 교회가 53년이 되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 안에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예스대(고동부)

◆ 저희 증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최용연(중동 2부)

◆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는 증언교회가 되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홍경화, 대학부)

◆ 우리 교회 생일이예요. 예수님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들어요. 예수님 저는요. 학교에 가서 우리 댁, 짝꿍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래요. 이태희(유년부)

◆ 증언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해 준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전도 많이 해서 십자가 사랑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

◆ 예수님만 따라가며 십자가 길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온작하고 최빈인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는 증언교회의 설립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윤지원(청년 1부)

◆ 먼저 교회를 세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믿



제39대 장로 피택자

정결한 복음의 도구로 깨어지게 하소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골 15:16).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복음의 일군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피택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피택 장로님들의 훈련 지도 방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이 되도록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이 이 모든 일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통령 장로)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가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행사 때에만 교회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님께 심방까지 오셨는데 정도였습니다. (장로수 안수집사)

모태 신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엄했던 신앙 교육은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복수 안수집사)

그 때는 듣기만 하였고, 본격적으로 회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성수 안수집사)

저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승도 안수집사)

어릴 적에 제가 사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 때부터 회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까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었습니다. (장기수 안수집사)

민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에는 회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후로 고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예수님을 믿어 경험했던 특별한 간증이나 체험은?

저는 고교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것은 “내가 지금 고교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저에게 학생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복수 안수집사)

저의 동생이 “근육력증”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10년 전쯤에 사도 요한처럼 꿈 속에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만난 주님은 매우 큰 손으로 저를 붙드시며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를 잡으셨던 손은 분명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나름대로 그 동안의 신앙 경험을 통한 고백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더욱 겸손히 말씀을 찾게 되었고 믿음이 주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기수 안수집사)

단순히 성서와 신앙 생활이 아닌, 구원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일군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제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집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복수 안수집사)

느슨한 교육이 아닌,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저를 새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고백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장로수 안수집사)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의 소망은?

우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수 안수집사)

오직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승도 안수집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저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절대로 고만하진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복수 안수집사)

저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장로수 안수집사)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성도의 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장기수 안수집사)

제39대 장로로 피택되신 여섯 분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으로 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피택되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통령 장로)

가토 우리는 꽤나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 회개가 없었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택되신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들이 열매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영광된 일직을 밟게되기 아니 복음에서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십자가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편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할렐루야! (엔델의 메시아 42번곡)

매주 금요일마다 “거룩한 성”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황홀하고 감격스러우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시간입니다. 짧은 날에 어느 교회 수요예배를 참석하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울 중심 한가운데 있던 그 교회는 직장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타교인들도 참석하는데, 온 성도들이 30분 정도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단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은 여기가 천국 같은데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왜 이 기쁘고 영광된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는 없는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때 영혼의 귀환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가족과 함께 금요 찬양집회, 이 시간이 자리에 있음은 너무나 귀하고 기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온 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같은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간... 그 귀한 것과 기쁨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빛으로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주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 나라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왕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천축하신 주님! 이 천국이 영원히 우리의 나라가 될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 되신 이 나라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길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의 금요 찬양집회에 온 성도가 참석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자기 형제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나사로를 부활하는 그 절박함을 느끼며 천국을 바라보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갖지 않게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길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최난희(집사, 8교구)

♡ 새 · 가 · 족 · 율 · 환 · 영 · 압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40	이대순	6	청년2부	이진규(6)
2241	권영화	1	장년1부	박태순(3)
2242	한라우라	19	외교부	리뷰드필러(19)
2243	홍영옥	11	청년3부	
2244	이근재	14	장년1부	김성수(16)
2245	황영배	5	청년2부	김경욱(1)
2246	김지훈	19	고교부	최보규(19)
2247	이 한	1	청년2부	강호숙(1)
2248	이은진	1	청년2부	강호숙(1)
2249	한기영	1	청년2부	이부설(1)
2250	한윤수	5	청년2부	
2251	이정화	5	청년2부	
2252	한정범	5	중등3부	
2253	김태진	19	청년1부	
2254	최익민	19	대학부	이미선(3)
2255	송미영	19	청년1부	김소연(9)

※ 주교회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illegible]